

# 박노해 시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구 명 숙\*\*

1. 머리말
2. 동지로서의 현모양처상
3. 동지로서의 투사적 여성상
4. 가장으로서 일하는 여성상
5. 맺음말

---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3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페미니즘 문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80년대에 노동해방가로 민중시인으로 혁명가적 치열한 삶을 살아온 박노해가 어떻게 여성을 말하고 있는가. 그가 그려낸 여성상을 그의 시집 『노동의 새벽』과 『참된 시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박노해가 그려낸 여성상을 세 가닥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시적 남성화자는 가사의 분담체험을 통해 남녀 불평등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즉 가부장제의 독재와 자본주의의 억압적 노동현장과 착취현실을 비교하여 자신의 행위 역시 그와 동일한 것으로 느낀다. 그러한 자각을 통해 그려진 여성은 순종하는 현모양처로 드러나지만, 일하는 여성으로서 강인한 동지의식을 동반한 현모양처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현모양처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둘째, 순종적인 여성상과는 반대되는 굳센 어머니상, 투사적인 딸들의 주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투사로서의 여성은 역시 남성(시인 자신)과 동일시되는 동지인 반면, 남성과 평등한 여성으로 사회의 지도자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투사적 여성상은 노동현장에서 동지의식으로 굳게 움썄었을 때의 이상적인 여성상이고, 결국 결혼해서 평생을 동고동락할 여성은 가정에서 살림만하는 현모양처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여성이 고유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전통적 역할 즉, 가사, 육아, 자녀, 교육 등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면서도 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가장의 역할까지 맡아야 수행해야 하는 '슈퍼우먼'의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박노해는 그의 이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생활체험을 시화하면서 결국 순종적이고 모성적인 강인한 투사적 여성상을 복합적으로 그려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핵심어 : 박노해, 페미니즘문학, 여성상, 남성화자, 민중시인, 노동시, 동지의식, 현모양처, 슈퍼우먼

## 1. 머리말

박노해의 시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80년대 민중문학의 성격과 젠더 관점의 재해석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시는 시 자체로서 그 성취도나 세계 인식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문학을 민중운동가로서의 삶과 일치시켜 온 박노해의 특이한 이력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80년대 민중운동의 이념과 연결되어 있는 문학관은 박노해 문학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지나친 단순화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문학은 계급 해방의 관점에서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제3세계 민족운동의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이념은 계급적 현실, 민족의 경험을 재현하는 리얼리즘이라는 미적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의 문학은 좌파 민족운동의 한 흐름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그의 이념이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특히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의 이념과 어떻게 연관되고 혹은 균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민족문학과 젠더의 겹쳐 읽기는 그간의 진보적 성격이라 평가되어 왔던 민중주의의 계급적 관점이 진정한 해방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갈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최근 페미니스트들의 연구에서는 계급적 관점에서 해방운동을 풀어갔던 제3세계의 민족문학이 남성중심적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여성을 부차적 존재로 만드는 민족국가 체계를 수립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제국주의의 국가주의와 닮아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정무와 멩위예(Meng Yue) 등의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최정무의 분석에 의하면 식민지배자의 힘은 식민지민들에게 끊임없는 유희와 환멸을 불러일으키며, 그로 인해 식민지민들의 심성에는 양가적 감정이 공존하게 된다고 말한다. 비판하면서도 선진적 발전상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근대적인 발전론에 근간을 둘 때 민족 해방을 꿈꾸면서도

제국주의는 그들의 발전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식민지 남성들의 경우 훼손된 남성성 즉 식민지배자에 의해 규정되는 거세된 남성성, 유아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식민지배자의 위치를 채택하게 되고, 그러한 모방의 과정에서 자기 종족의 여성 주체를 부정하고 억압하게 된다고 지적한다.<sup>1)</sup>

중국 사회주의 문학에서의 여성 이미지와 국가적 신화를 분석한 밍 위에는 여성을 어떻게 국가적인 정치담론의 대리인으로 만드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사회주의 문학 역시도 여성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재현하는 한편, 계급이나 사회정치적 그룹, 혹은 당의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하는 두 개의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적법한 정치적 정체성(identity)과 여성성(womanhood)을 결합시키는 이중 전략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결국 '순종적이고모성적인 강인한 투사'라는 기묘한 여성 이미지는 여성을 공적 영역으로 불러내면서도 부차적 존재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논의는 박노해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그의 시집 『노동의 새벽』이나 『참된 시작』 등에서 보여준 여성이미지가 민족이나 계급적 이념을 드러내는 단순한 대리물로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80년대 운동 속에서 달라지고 있는 여성의 경험을 실감나는 시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면, 그의 문학적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자칫 젠더의 관점에서 제3세계 민족문학을 이해할 때 그들의 남성중심주의나 제국주의 모방만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민족주의 담론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태도이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지배와 폭력이 여전히 민족을 단위로 일어나는 역

1) Chungmoo Choi, "Nationalism and Construction of Gender in Korea", *Dangerous Women*, Routledge, 1998, p.14.

2) Meng Yue, "Female Image and National Myth", *Gender Politics in Modern China*, (Edited by Tani E. Barlow, Duke University Press, 1993), pp.118~119.

사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3세계 민족문학이 지니고 있던 거대 권력에 대한 비판의 힘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제3세계 민족문학이 여성을 도구화하지 않고 새로운 평등한 세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해 가는가 혹은 보수화된 여성의식으로 퇴행하는가는 그 문학이 남성 중심적인 제국주의 모방을 견지하고, 새로운 모색을 지속하는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 2. 동지로서의 현모양처상

페미니즘 문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80년대에는 고정희, 최승자, 김혜순, 김정란 등의 여성시인들이 여성의 문제를 자신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목소리로 폭넓게 그려내고 있다. 이들 80년대 여성시인들은 여성의 문제를 자신들만의 고유한 주제와 문체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남성과는 다른 여성 본래의 독특한 목소리를 당당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 시대에 노동해방가로 민중 시인으로 맹활약한 박노해는 남성시인 자신의 목소리로 어떻게 여성을 말하고 있는가. 본고는 박노해가 그의 혁명가적 치열한 삶 속에서 그려낸 여성상을 그의 시집 『노동의 새벽』과 『참된 시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박노해의 시세계가 근거하고 있는 사회과학적 시각과 페미니즘과는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의 시 속에서 그려지는 여성상은 이제까지의 한국문학 내에서 묘사되었던 것과는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노해는 1956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중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교회의 서클활동과 야학 등에 참여하며 당시 지식인들의 급진적 자유주의와 민중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사회주의와의 만남을 통해 투쟁적 이데올로기에 접하게 되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반독재 투쟁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sup>3)</sup> 그 과정에서 박노해는 급진적 성향을 띠며, 열악한 노동현실

에 대한 폭로와 군부독재 정권에 맞선 투쟁의지를 보이며 노동자들의 노동운동과 반민주 투쟁을 위한 선봉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재산제도와 계급주의의 맹점을 비판하며 노동의 착취와 삶의 유린을 문학적 장치를 통해 폭로하게 된다.

그의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은 노동현실의 구체적인 체험에 깊이 뿌리 박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절망과 슬픔, 원한과 분노의 정서를 생생히 담아냈다. 따라서 그의 시집 『노동의 새벽』은 구체적 현장성에 실천적 운동성을 가하여 감상적 호소나 단순한 고발의 차원을 벗어나 민중해방의 정서와 의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민중적 리얼리즘의 위대한 승리’이며, 기층 노동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비인간적인 삶의 질곡과 억압에 짓눌리고 좌절하면서도, 마침내는 그들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그들을 구속하는 물질적 세력을 던고 일어서서 ‘노동의 새벽을 향해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시집 『노동의 새벽』에 대한 평가는 민중적 시각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반면 이 시집이 획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망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다고 보여 진다.

박노해는 1989년 결성된 세칭 <사노맹>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했고 옥중에서 쓴 작품들을 모아 1993년 『참된 시작』을 출간했다. 『참된 시작』의 세계는 『노동의 새벽』에 비해 시인 자신의 내면이 훨씬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 즉 ‘이데올로기의 붕괴’를 목격하는 ‘의식 있는 선진 노동자’의 담담한 자기반성과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그의 시는 철저한 현장성을 바탕으로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꿈꾸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본가들의 착취와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도 인간이다’는 명제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그것의 성취를 위한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동자들의 세계에서

3) 『한국대표시인선 50—박노해 편—』(중앙일보사, 1995), p.488.

인간적인 삶을 요구하고 나설 때는 남녀가 투쟁의 동지로 하나가 되어 뭉쳐있기 때문에 여자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한 사람 한사람이 눈물겹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노동해방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평등사회가 오기를 꿈꾼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가 간직한 순결한 영혼의 반영이며, 그가 감옥에서 ‘친생태주의자와 친여성주의자’의 면모를 띠고 자신과 세계를 성찰할 때에도 그는 ‘당연의 세계’를 앞에 설정하고 현실에 맞선 사람이다. 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 세상을 읽고 그에 근거해서 투쟁을 전개해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 3시집으로 오면서 자연과 우주와 몸을 발견하였고, 그와 아울러 세계가 대립의 구도를 품으면서도 궁극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상생의 작용에 의하여 전개돼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기원이 사유재산의 발생에 있으므로 자본주의 체계를 변혁시키는 것과 더불어 여성해방도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다. 박노해의 인식도 이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꿈꾸는 세계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말한다. 즉 계급적 억압이 사라진 평화롭고 평등한 이상적 세계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 속에는 성차별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의 시작품들에서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서의 애환과 인간적 꿈, 그리고 그 염원뿐만이 아니라 성적 억압과 불평등 및 사회적 모순에 대한 각성의 노래도 생생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이불호청을 꿰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의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소에 고추장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달라 물달라 옷달라 시켰었다  
.....중 략.....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나는 성실한 모범근로자였다

.....중 략.....

편리한 이론과 절대적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된  
몸서리쳐지는 이윤추구처럼  
나 역시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었다

투쟁이 깊어 갈수록 실천 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 낸다  
노동자는 이윤 낚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홀정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 이불을 꿰매면서 —4)

위의 시는 공장에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겪는 생활의 단면 속에서 이중

4) 박노해, 『노동의 새벽』, 풀빛, 1984, pp.99~101.



으로 노동에 시달리는 아내의 역할을 어느 날 남편이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노동자에 대한 억압이듯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 즉 가부장제의 횡포임을 자각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여성은 가사노동까지 부담해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데 이는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관습인 것이다.

가부장제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뜻한다. 최근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란 남성들이 신체적으로 강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남성들에 비하여 가족부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남성들이 생물학적으로 강한 성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적으로 주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가정 외적 활동을 창조, 확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정과 공공 영역의 분리와 체계적 성 역할 분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들은 출산과 수유의 임무를 지지 않고 여성처럼 인내를 요구하고 감정에 이끌리는 “관계”에 고착되지 않으므로 가정을 벗어난 영역에서의 활동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소위 공적조직으로 발전되어 남성지배체제의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남성지배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창조능력을 가진 여성의 힘에 위협을 느끼고 인공적(문화적)기제를 통해 이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간 남성들의 노력의 과정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부장제는 단순한 노동구조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 심리적 차원을 포함한 시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sup>5)</sup>

현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남존여비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지배는 크게 약화되었으나, 아직도 심층적인 차원에서 그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은 고정적인 것이어서 언제나 여성의 역할로 주어져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인식되어 있어 여성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당한다.

5)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93, pp.53~60 참조.

그의 시 「이불을 꿰매면서」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자각하고 저 임금 장시간 노동에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가부장제라는 허구적 관념으로 이중의 억압을 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남성들의 성차별적 착취와 억압의 모순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불을 꿰매는 일은 단순한 가사 일이 아니라 익숙한 바느질을 할 줄 알아야 하는 좀 더 전문화된 가사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적 화자는 단순한 가사 일을 돕는 차원의 역할이 아니라 가사 일을 전담해 나간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박노해 시에 나타난 자각하는 인간의 모습,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들은 그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역사적 인간으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쓴 첫 시집 『노동의 새벽』과 둘 째 시집 『참된 시작』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그의 시속에 현실로부터 부당하게 소외당한 한 인간이 스스로의 인권을 찾아가는 이른바 ‘자각 및 각성의 과정’이 여실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각하는 인간과 행동하는 인간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노동해방을 염원하는 속에서 동지인 아내가 불평등한 위치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내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동자가 아니었다면 동지적 신뢰와 착취의 이중구조를 그토록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이불을 꿰매면서」, 얻은 자각은 자신의 안일한 남성인식을 반성하는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의 여성은 자신의 억압적 상황을 스스로 타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각조차 못하고 있는 수동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오히려 시적 화자인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억압적 상황이 지각되고 있으며, 정신적인 면에서 남성이 여성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남성 우월적 분위기를 나타내며, 가정에서의 남녀 불평등을 가장인 남성 스스로 깨닫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착한 남편, 진보적인 남성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를 뿌리로 하여 양산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이 작품 속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그려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현모양처가 되려는 여성들은 닫힌 공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보

살피는 노동 속에 산다. 그것은 주로 남자나 아이를 보살피는 노동이다. 남자는 이를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회는 그러한 보살피는 일, 즉 현모양처의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보살핌이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지극한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노동으로 평가받지 못하며 가사노동을 마치 '없어도 무방한' 여벌의 노동인 것처럼 취급해 왔다. 이것은 여성들의 가사노동이 사회적인 가치로 평가받을 수 없는 숨겨진 하인노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보살핌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이들의 양육이다. 이 양육은 남성에게 공적 영역의 성취를 전승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하며, 불멸하는 생을 생각하게 한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는 부여 받지 못 하는 것이다.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순종적인 여성, 그리고 모성으로서 모든 걸 받아주고 품어 줄 수 있는 여성상이다. 위의 인용시 역시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갖지 않고 묵묵히 따르는 "양처"로서의 여성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신혼 일기」에서도 여성은 "깊은 잠 속에 떨어져 주체 못할 피로에 아프게 눈을 뜨면/야간일 끝내고 온 파랗게 언 아내는/ 가슴 위에 얹으려져 하염없이 쓰다듬고/사랑의 입맞춤에/내 몸은 서서히 생기를" 띠게 된다. 자신도 야간작업으로 쌓인 피로와 추위에 파랗게 언 몸을 하고 있으면서 지쳐 쓰러진 남편에게 따뜻한 삶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자신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아내의 보살핌으로 지쳐 쓰러진 남편의 몸에 생기가 살아난다. 즉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일할 힘을 불어넣어 준다. 그것은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좋은 아내라는 관념에 길들여진 순종적인 여성의 이미지에 다름 아니다.

「천생연분」에서는 나와 아내가 하나인 일심동체이면서 아내는 나의 가장 신뢰하는 동지임을 노래한다. 시인은 이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6) 송무 외, 『젠더를 말한다』, 도서출판 박이정, 2003, pp.76~77 참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당신이 이빠서가 아니다/젓은 손이 애처로워서 아니다 ... 듬직한 동지며 연인인 당신을/이 세상에서 켈 사랑한다/나는 당신이/ 미치게 미치게 좋다”고 고백하고 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까닭은 동지이면서 연인이기 때문이다. 동지가 아니라면 연인이 되지 못 했을 만큼 ‘동지’에 무게가 실려 있다.

“내가 동료들과 술망태가 되어 와도/머칠씩 자정 넘어 동료집을 전전해도/ 건강격정 일격려에 다시 기운이 솟고/ 결혼 후 3년 넘게 그 혼한 썬 일샤스 하나 못 사도/짜장면 외식 한번 못하고 로션 하나로 1년 넘게 써도/항상 새순처럼 웃는 당신이 좋다”고 한다.

나의 일을 모두 이해해 주고 어려운 살림에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항상 새순처럼 웃는’ 인형 같은 현모양처 이미지를 보여 주는 반면 “조금만 나태하거나 불성실하면/가차없이 비판하는 진짜 겁나는 당신/ 좌절하고 지치면 파스한 포용으로/생명력을 일깨 세우는” 아내는 평생 듬직한 동지로서 단순한 현모양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 3. 동지로서의 투사적 여성상

80년대를 ‘이념의 시대’로 규정할 때, 그 이념의 한 가운데에 서서 자본주의 사회 현실과 정면 대응을 시도하며 노동해방을 통한 혁명을 노래한 노동자 시인 박노해는 노동자에서 활동가로, 활동가에서 노동운동가로, 노동운동가에서 사회주의 혁명가로, 사회주의 혁명가에서 영어의 몸으로 자신의 환경을 달리해 오면서도 그는 변함없는 시인이었다.

박노해는 80년대라는 시대의 한 상징이기도 하다.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박노해는 우리 사회가 지나쳐온 어둡고 긴 터널을 상징한다.<sup>7)</sup> 김병익은 진보주의적 실천운동에 대해 “타인과 공

7) 방민호, 『투쟁에서 성찰로 가는 먼 길』, 제35호(작가세계), p.18.

적 사회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고와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헌신은 선한 인간의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었으며, 그 헌신의 대가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바른 길로 들어설 길을 찾게 되었으며 노동자와 소외계층들의 인간적 삶을 향한 자의식과 실제적 노력을 추구할 힘이 길러내질 수 있었던 것”<sup>8)</sup>이라고 말한다.

열악한 민중의 실상, 지적 정보적 억압과 폐쇄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이상을 추구하던 이들은 또 다른 독재의 이념에 치우치게 되었고, 그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이라는 이름에는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요약되는 근대화주의와 국가주의, 또 그 뒤를 이은 군사독재 집단의 허위성과 폭력성이 담겨있다. 그 과정은 근대화주의와 개발독재의 논리로 권력의 민중에게 대한 박해가 지속된 시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박해의 실상을 직시하고 그러한 상황에 마침표를 찍고자 했던 이들이 도달한 이념의 한계 또한 함축하고 있다.

삶과 문학의 일치 문학과 운동의 일치를 지향하던 당시의 풍조 속에서 그의 시들은 현장노동자의 것이면서도 의식성과 운동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에 값할 만했다. 그러나 이미 당시에도 『노동의 새벽』의 관념적 급진성이 지적되고 있음은 눈여겨볼 일이다. 채광석은, 물론 개개의 시들 중에는 감상이나 고발의 차원에 머문 것도 더러 있고 현장성과 운동성간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경하고 도식적인 시들도 간혹 발견된다고 보았다.<sup>9)</sup>

노동해방문학을 통한 정치주의적 문학실천의 과정 속에서 그의 시는 생명력을 소진당하고 말았다. 시인이기에 앞서 혁명가이고자 했고<sup>10)</sup>, ‘한 손에는 꽃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혁명의 제단에 시를 헌사하려 했던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의 시의 좌절은 많은 것을 시사

8) 김병익, 「겨울나무의 뿌리 키우기」, 『참된 시작』, 창작과 비평사, 1993, p.235.

9) 채광석, 『노동의 새벽』 해설, p.159.

10) 박노해, 이 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신동아, 1990.12. 참조.

해 주지만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과 문학 또는 정치와 문학 사이의 간극을 말해주는 듯하다. 박노해가 혁명의 제단에 빛나는 시를 바치고자 하면서 빚어놓은 시편들 중에는 그와 혁명적 뜻을 같이 하거나 한 걸음 앞서서 투쟁해 나아가는 투사적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부서별로 반별로 조별로 나뉘어져  
서로 경쟁하고 씹어대던 너와 나  
시다라고 초짜라고 여자라고 아줌마라고  
서로 무시하고 걸돌기만 하던 우리는  
똑같이 몸팔아 먹고사는 계급이기에  
너나없이 착취당하는 노동자이기에  
투쟁전선에 함께 선 굳센 동지로  
일사불란하게 조직된 전투부대로  
뜨겁게 머리띠를 함께 묶는다

— 머리띠를 묶으며(4연) —11)

위의 시에서 보듯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여자와 아줌마는 일단 미숙련공이나 초보자에 묶여 차별 받고 있다. 그러나 투쟁의 거사를 위해서는 힘의 결집을 위해 모두 평등한 한사람이 되는 것이다. 착취당하는 똑같은 노동자 계급이기에 투쟁전선에서는 굳센 동지로 함께 싸운다는 것이다. 동일한 목표를 향해 동지애로 뭉치게 될 때 비로소 남녀가 평등해 짐을 엿보게 한다.

학교 못 가 티향까지 공장을 떠들면서도  
너는 이렇게 진달래 꽃망울처럼  
찬연하게 눈부시게 피어났구나  
.....중 략.....  
제 앞가림도 어려운 힘겨운 노동살이 속에서도  
너는 비굴하고 이기적으로 찌들리지 않으며

11) 박노해, 『참된 시작』, 창작과 비평사, 1993, p.92.

동료들을 위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여장부 투사님으로 성장하였구나

당당하게 외쳐대는 너의 목소리가  
무시무시한 계급투쟁, 노동해방, 혁명이란 말까지  
네 입에서 나오니 소담한 쌀밥만 같구나  
네가 입은 푸른 죄수복조차  
봄빛 푸른 보리물결마냥 빛나는구나  
묶인 네 손목의 차가운 수갑조차  
결혼식날 네 손에 들려 있을 꽃다발보다  
아름답게 보이고 눈부시구나  
내가 꿈꾸던 결혼식날의 네 모습보다  
법정에 선 네 모습이 화사하고 곱구나

.....중 략.....

아 아 딸아 우리의 딸아  
너는 이 에미도 모르게 커서 노동 속에 커서  
끈끈한 욕심이 주름진 좁은 투사가 되었구나  
빛나는 민중의 큰딸이 되었구나  
네 모습 빛나서 사무치게 빛나서  
네가 외치는 구호소리를 함께 부른다  
미친년처럼 제 딸년 죄수로 세워놓고도  
멋쩍하고 자랑스럽게  
네가 혼신으로 외치는 말씀을  
울며 악을 써 함께 부르짖는다

‘노동자의 서러움 투쟁으로 끝장내자’  
‘가라 자본가세상, 쟁취하자 노동해방’  
‘노동자 해방투쟁 승리 만만세’를  
목메이게 사무치게 울부짖는다

— 저 아이가 — 부분12)

위의 인용 시 「저 아이가」에 잘 나타나 있듯이, 박노해가 노래하는 우리의 딸 우리의 어머니는 일단 투사로서의 불사신 같은 혁명적 동지이며 나(노동자)와 일치된 여성을 뜻한다. 우리의 딸들은 당당하고 강인한 혁명투사로 우리의 어머니는 “어머니는 단 한번도/자신의 삶을 회의하지 않고/남의 탓으로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다/…나도 어머니처럼 성실하고 치열하게/운동가로서의 의무를 단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다/…당신의 고통 당신의 노동 눈물 아는 나는/…끝내 죽음 앞에서, 오 죽음만은 피해가고 싶던 그 순간에도/ 나도 어머니처럼 철저하게 철저하게/ 온몸 바쳐 투쟁할 수밖에 다른 길은 없었다”<sup>13)</sup>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아버지를 부정하며 유년의 세월을 보냈던 박노해는 결국 고 3 때 아버지의 무덤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며 아버지를 인정하게 된다. “내 아버지는 참으로 불행한 인물이었다. 그분은 철저한 사회주의 혁명가가 되지 못 한 채 패배한 역사 속에서 무력한 패배자로 떠돌았다”<sup>14)</sup>고 고백하는 박노해는 그래서 더욱 아버지 보다 철저한 사회주의 혁명가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아버지처럼 어설픈 혁명하지 않고 철저하고 치열하게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도 한다. 아버지는 적당히 살다간 사람으로 그 대가를 남은 사람들이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결국 박노해의 투철한 투쟁의식은 어설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철저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어머니와 어머니가 사랑으로 여기는 딸들은 그 어디에도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앞서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투사이며 민중의 당당한 지도자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 예시한 「허재비」라는 시를 보면,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를 아내로 선택하였지만 결국, 아내에게서는 투사적 면모를 기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박노해의 시에 나타난 양면성이기도 하다. 여성을 동지적 투사로 노래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

13) 박노해, 위의 책, pp.70~73.

14) 박노해, 『이 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신동아, 1990.12, pp.331.



로는 다소곳이 순종하는 현모양처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즉 어머니는 사회의 지도적 투사형인 이상적 여성으로 그리는 반면 아내는 '살림만하는' 가정의 순종적인 현모양처로 그려진 채 병존하고 있다. 이로 보아 그의 문학 속에는 순종형과 투사형이 복합적으로 내포된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튼실하고 듬직한 게 선머슴처럼  
 깡 좋고 억척스러운게 올 어머니 닮아서  
 수줍은 진달래 피어나던 밤에  
 옥이 너를 내 것으로 담쑥 품었제

.....  
 1차로 내년에는 전세방으로 영전하고

2차로 폼나는 드레스 입고 보란 듯이 식 올리고

3차로 그대는 살림만 하면서

예쁜 아가 낳아 오손도손 살아갈 날 위해

제발 몸만 아프지 말자

— 허재비 — 부분15)

위의 시 「허재비」는 착취당하는 강제노동에서 벗어나 장차 가정에서 육아와 살림만 하며 오손 도손 행복하게 살아갈 날을 꿈꾸며 함께 일하던 동지 옥이가 어느 날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는 허망함과 좌절을 노래하고 있다. 억척스럽고 튼튼하고 활발한 여성을 아내로 맞고자 함은 우선 노동자로서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굳센 동지를 이상적인 여성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되면 결국 육아와 살림만 맡아 하는 전업주부인 아내를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노해가 그의 시작품들에서 노동해방을 위해 혁명투사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한 믿음직한 동지로 그리고 있는 여성은 진정한 시인 자신의 아내감이

15) 박노해, 위의 책, pp.139~140.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일이 반드시 여성을 해방시켜 주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여성이 해방되고 자 할 때에 경제적 자기 충족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일 하는 여성들 대부분은 직장에서 장시간 일을 하고 집에서도 장시간 일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가정 안의 문제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인 반면 직장의 문제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 또한 혼자만 고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대개 남자가 바깥일을 담당할 때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가정을 안락한 쉼터로 만드는 노동을 했다. 가정 안에서 여자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에 쓸 때, 기정은 그녀에게 긴장을 풀고 쉬면서 기쁨을 얻는 장소가 아니라 일터이다. 남성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충분히 가지려면, 경제적 자기충족은 필수적이다.<sup>16)</sup> 그러한 경제적 자기충족을 위해 일하는 여성에 대해 박노해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 4. 가장으로서 일하는 여성상

가부장제라는 굴레는 여성에게 수동적이고 나약한 역할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다음의 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 책임져야 하는 강인한 여성의 역할도 요구한다.

우리 오매 일찌기 흠뻑으로  
 논 서마지기 농약 뿌리다  
 허연 두 눈 치뜨고 돌아가시고  
 두견이 피 토하는 울음을 뒤로

16) 벨 훅스 지음/박정애 옮김, 『행복한 페미니즘』, 백년 글 사랑, 2003, pp.116~123, 참조.

서울로 캄캄하게 떠나올 제에  
 누나 따라 간다며 속도 손을 뿌리치고  
 치맛자락 매달리던 코흘리개 영석이가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영어회화 듣기 평가 시험에  
 카세트 테이프가 없어서  
 잘사는 집 애들보다 점수가 뒤진다며  
 자정이 넘도록 영어 책을 읽다가  
 잠꼬대로까지 중얼거린다

누나는 미국전자회사  
 공순이가 되었어도  
 세컨라인 리더가 되어  
 QC활동에 목이 붓도록  
 칼처럼 곤두세워 오버타임을 더 해도  
 다음 달엔 우리 영석이  
 카세트랑 테이프는 꼭 사서 주마  
 잔업 끝난 자정거리 휘청거리려 오면  
 하지 말라 화를 내고 다짐을 해도  
 영석이는 서툰 솜씨로 밥을 지어 차려 놓고  
 낭랑하게 꼬부라진  
 영어회화 공부를 한다

누나는 못 배워서  
 무식한 공순이지만  
 영석이 너만은 공부 잘 해서  
 꼭꼭 훌륭한 사람되거라  
 하지만 영석아  
 남 위에 올라서서  
 피눈물 흘리게 하지는 말아라

— 영어회화 — 부분17)

17) 박노해, 『노동의 새벽』, 풀빛, 1984, pp.48~51.

신분제의 문란, 민중의 봉기, 외세의 압력의 소용돌이 속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빈곤과 혼란을 경험한 한국의 근대사 초기를 통해 확대된 여성의 활동이 남존여비적 사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부계 혈통을 이어갈 남성의 생존을 확실히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여성들은 절대적 사망감을 갖고 남편과 아들을 감싸왔던 것으로 보인다. “씨”가 이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 보전에 필수적이며 언젠가 집안을 크게 일으키더라도 남자가 없이는 그 영광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여성들은 오히려 집안의 ‘남자’를 살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즉 남성 부계의 시기를 통해 남자는 더욱 존귀한 존재로 부상되었으며, 남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서 직접적인 우월감이 확보되는 부계 혈통 중심의 남성 우월주의는 전혀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혜정의 지적대로 한국의 여성들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남편을 출세시키고 자녀를 일류학교에 입학시키며 억척스럽게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늘려왔다. 이러한 여성의 활동은 후발공업국에서 대체로 나타나며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회구조적 여건에서 자극되어온 활동 영역이다. 특히 한국의 여성이 어느 나라 여성 못지않게 이에 전력투구해온 것은 전통적인 부덕을 내면화시킨 가족의 안주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의 지속성의 면에서 설명<sup>18)</sup>되는 것이다.

위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인 화자 자신은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진학도 포기한 채 서울로 상경하여 “무식한 공순이”가 되었지만 남동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누나는 남동생이 필요로 하는 영어회화시험을 위한 카세트테이프를 사 주기 위해 “칼처럼 곤두세워 오버타임을 더”한다. 그러한 누나의 바람은 “너만은 공부 잘해서/

18) 조혜정, 앞의 책, pp.92~103 참조.

꼭 꼭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누나인 화자의 고생도 보람을 찾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여성의 이미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어려운 생활을 능동적으로 건강하게 헤쳐 나가는, 기존의 나약한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난 주체적 여성의 이미지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남동생이라는 타자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습에 젖어 있는 수동적이고 비주체적 여성의 이미지이다. 이러한 양상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서로 변환되며, 소외계층의 여성에게 일수록 두 가지 여성상은 공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의 역할을 떠맡은 딸은 장차 가문을 빛내 줄 남동생을 위해 소리 없이 아버지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꿈」이라는 작품에서도 위와 비슷한 상황이 엿보인다. “못 먹고 부친 돈으로 빚은 얼마나 갚았을까/주름진 어머니의 손등, 고풍 깊은 아버지의 검게 탄 얼굴/철없이 보채고 웃고 싸울 동생들의 모습이/진달래 꽃잎처럼 선연하다”로 재현되고 있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라는 가부장제는 결국 상황에 따라 여성에게 순종적인 혹은 억세고 강인한 여성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 5. 맺음말

박노해의 문학세계는 80년대 상황과 함께 민중문학, 노동자문학으로 일갈하고 있다. 그는 70년대의 민족주의 문학, 민중주의 문학과와의 확연한 차별성과 80년대 문학적 요소를 지닌 채 등장하였다. 노동자의 삶은 여러 형태의 삶의 한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특수한 체험의 세계이다. 따라서 그것이 전 인간적 감동의 차원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그 특수한 삶에 내재해 있는 인간 보편의 가치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 근원적 통찰이 결핍될 때 그것은 특수한 것에 대한 일과성 호기심만을 자극할 뿐, 인간

삶의 질적 전환을 일으키는 진정한 문학은 될 수 없다. 문학의 진정성은 가치 독립적인 요란한 구호나 선동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과 세계에 대한 깊고 진지한 반성과 성찰에 기초한 현실 대응체로서의 문학의 역동성을 회복할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노해의 시에 나타난 여성상을 살펴 본 결과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시적 화자는 가부장제의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던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제 가사의 분담체험을 통해 남녀 불평등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즉 가부장제의 독재와 자본주의의 억압적 노동현장과 착취현실을 비교하여 자신의 행위 역시 그와 동일한 것으로 느끼고 부끄러워한다. 그러한 자각을 통해 그려진 여성은 다소곳하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현모양처로 드러나지만, 일하는 여성으로서 강인한 동지의식을 동반한 현모양처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둘째,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상과는 반대되는 능동적이며 굳센 어머니상, 투사적인 딸들의 주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투사로서의 여성은 역시 남성(시인 자신)과 동일시되는 동지인 반면, 남성과 평등한 여성으로 사회의 지도자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투사적 여성상은 함께 노동현장에서 동지의식으로 굳게 뭉쳤을 때의 이상적인 여성상이고, 결국 결혼해서 평생을 동고동락할 여성은 가정에서 살림만하는 현모양처를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성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전통적 역할 즉, 가사, 육아, 자녀, 교육 등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면서도 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가장의 역할까지 맡없이 수행해야 하는 '슈퍼우먼'의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자아에 대한 전통적 정의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아 개념,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자기희생과 선을 도덕적으로 여기게 하였다. 무조건적인 보살핌과 순응, 자기희생을 여성의 선행으로 간주하여 왔

다. 여성, 특히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갖는 주체로서 자각하기보다는 언제나 가족들의 요구에 헌신적으로 반응하는 순응자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여성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요구에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여성상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역을 가진 일하는 여성상이 부각되었고 이는 여성들의 정체성도 자기희생보다는 자아실현, 자아정체성 확립으로 그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

박노해는 그의 이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체험을 시화하면서 결국 순종적이고 모성적인 강인한 투사적 여성상을 복합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는 여성을 공적 영역으로 불러내면서도 부차적 존재로 간주하는 이중성에서 빚어진 박노해의 여성의식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노해, 『노동의 새벽』, 풀빛, 1984.  
 ——, 『참된 시작』, 창작과 비평사, 1993.

### 2. 국내 논저

- 김병걸, 채관석 편, 『민족, 민중, 그리고 문학』, 지양사, 1985.  
 김사인, 강형철 엮음, 『민족, 민중문학론의 쟁점과 전망』, 푸른 숲, 1989.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90.  
 박노해,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노동문학사, 1989.  
 ——, 「이 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신동아』, 1990.12.  
 방민호, 「투쟁에서 성찰로 가는 먼 길」, 『작가세계』, 제35호.  
 벨 혹은 지음(박정에 옮김), 『행복한 페미니즘』, 백년 글 사랑, 2003.  
 신경득, 「명에 매운 소들의 노래」, 『비평문학』, 제10집, 비평문학사, 1996.  
 임철규, 「평등한 푸르른 대지」, 『창작과 비평』, 제82집, 창작과 비평사, 1994.12.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93.  
『한국대표시인선 50—박노해 편—』, 중앙일보사, 1995.  
한국시문학회 편, 『한국현대시작품연구』, 학문사, 1989.  
한국여성연구회 문학분과 편역,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0.

3. 해외논저

Chungmoo Choi, “*Nationalism and Construction of Gender in Korea*”, *Dangerous Women*, Routledge, 1998.

Meng Yue, “*Female Image and National Myth*”, *Gender Politics in Modern China*, (Edited by Tani E. Barlow, Duke University Press, 1993).



Abstract

**A study on Womanhood Reflected in Park Noh-hae's Poetry**

Koo, Myong-Sook

This paper researches how Park Noh-hae, who had struggled during his life as a popular poet and labor-emancipator in 1800s when feminism literature became serious on a full scale, describes women especially in his collection of poems-"Dawn of Labor" and "The True Beginning". As a result, three kinds of womanhood in his works have been deduced.

First, the man speaker begins to recognize the unfairness between men and women by experiencing the share of housework. That is, comparing with absolutism under patriarchy and the oppressive labor situation under capitalism, he realizes that his behavior is the same as that of women. Although those women who are described through such realization appear to be "a good wife and wise mother" in his poem, it makes some difference compared to the traditional "good wife and wise mother" by illustrating the women who have strong comrade-awareness as working women.

Second, he describes independent strong mothers and activist daughters in contrast with to obedient women. A woman as an activist, who is considered to be identified with a man, stands out as a leader of society. However, an activist woman is ideal only when they unite firmly with men in the field of labor. Ultimately, the woman who a man would want to be within in his whole life is described as a good wife and mother who assume home responsibilities.

Third, women are supposed to be responsible with their typical roles such as

housework, baby-sitting, looking after and educating their children at home,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regarded as women's original field. However, he gives so-called a "super woman" figure who must take the role of husband when the patriarch are away from home.

In conclusion, Park Noh-hae has showed obedient, maternal, strong, and activistic women in a complicated way in the process of practising his ideals.

**key words** : Park Noh-hae, feminist Literature, womanhood, man speaker, Populist poet, labor poetry, comradeship, a good wife and wise mother, super woman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